

마을의 사랑방 役割을



이 중 훈
한국전력기술(주) 사장

20년 전 1차 석유파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기름값이 워낙 컸기 때문에 에너지의 자급이라는 말은 일반국민들에게 큰 관심거리가 되지 못했다. 이러한 시대배경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기획하고, 없는 자금을 외국에서 빌어와 프로젝트를 착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기술도 없고 재력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물자는 해외에서 수입해 올 수 밖에 없었고 설계부터 감리까지도 외국인에게 기댈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실정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우리 산업계에 큰 도움을 주리라고 믿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20여년이 지난 오늘날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우리 산업계에 실질적으로 주는 도움은 당초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졌다. 특히 국내 기술진에 의해 발전소 설계를 수행함으로써 인하여 기자재 국산화가 획기적으로 늘어났을 뿐 아니라 원

전의 철저하고 까다로운 품질관리는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품질수준을 우뚝 솟아오르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제 대기업인 중공업분야에서는 원자로압력용기를 단조해 내고 있으며, 중소기업분야에서는 전자제어기기산업, 반도체산업, 소프트웨어산업까지 국산화의 폭을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20년 전 한국원자력산업회의(원산)가 처음 발족할 당시에는 회원 확보에도 힘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변해도 참으로 많이 변했다. 우리나라 중요 산업 중에서 원전 건설,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무관한 산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원자력산업은 우리 산업계의 큰 몫을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 원자력산업이 우리나라 중요 산업의 품질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분야도 많고, 또 원자력산업에 각종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많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업체들은 원산이 자기와 무관한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항차 원자력산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회사도 그저 원산은 한국전력공사가 돈을 대고 원전홍보나 하는 기관쯤으로 생각하는 업체가 많다. 그 까닭을 생각해 보면 원산이 이들 회사를 위해 기여하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원산은 원전홍보 업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러다보니 원산이 회원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는 정력을 기울일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금년초 원자력홍보업무가 새로 발족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으로 이관되어 원산이 원전홍보의 질곡에서 벗어난 셈이다. 이제 원산은 FORUM이라는 명칭 그대로 원자력산업체를 위한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원자력산업간의 대화의 기회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원자력산업간의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중재하고, 정부가 손대기 어려운 업체간의 문제일지라도 원자력산업의 원로와 경영인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회를 만들고 결론을 유도하며, 이를 원자력산업계의 공론으로 하여 정부에 정책건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원자력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기준이나 규범도 만들어 산업계가 준수토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원산이 활성화될 때 우리 산업계는 원산에 더욱 많은 애착과 신뢰를 갖게 되고 그 영향력도 더욱 확장될 것이다.■